

지역 소식통

완주군, 성인문해교사  
강사비 선 지급

완주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성인문해 진달대학교 개학 연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곤란을 겪는 문해교사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사비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선지급대상은 문해교사 10명이며 지급액은 수업이 운영되지 못한 2~4월분 강사비에 1/3에 해당하는 총 1300만원 규모다. 문해교사별 지급액은 70만원에서 160만원이며 오는 20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선지급금 외에도 지속적인 추가수업 통해 강사비를 최대한 보전해 줄 계획이다. /원주=이중복 기자

김제시보건소, 집단급식소  
식탁 칸막이 설치

김제시보건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급식소 30개소에 식탁 칸막이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배부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8개소, 산업체 9개소, 공공기관 2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함에 따라 점심시간 공동식사 시 밀접 접촉과 비말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차단해 이용자 간 감염병 전파를 사전에 막기 위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감염병 확산방지  
와경기회복 총력대처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부서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부서별 협조사항을 공유했다.

이날 박준배 김제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여 김제시민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2차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 전반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신속집행, 김제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 소상공인 빈집포 입대료 지원사업 등 실효성 있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 완주군, 소규모 대상... 4인가구 기준 20만원 지원 지역화폐 '으뜸상품권'으로 20일 경 지급 예정

완주군이 코로나19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2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최재원 완주군의 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함께 6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의 요구가 큰 상황에서 완주군의회에서 제안하였고,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를 전체 의원이 발의함으로써 집행부의 지원방안이 보다 신속히 실행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소득하위 70% 이하(1400만 가구) 가구 100만원 지원(4인가구 기준)을 충실히 뒷받침하면서 정부 정책에서 제외되는 군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박 군수는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준비 4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군의 자체 지원책으로 총 4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며 "군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경제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정책(4인가구/100만원)에서 제외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주군 전체 42,000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20만원을 추가적으로 긴급지원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예비비를 긴급 활용, 선집행 지원할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2020년 4월 6일 0시를 기준으로 신청일 까지 계속해서 완주군에 주소 소를 두고 있는 주민(주민등록지 기준)이며, 지급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구별로 세대주 신분증 확인만으로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조례제정 등 제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4월 20일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으뜸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3개월로 제한하여 단기간 내에 지역 소비를 유도, 소상공인과 지역업체 매출 증대와 지역사회 소비촉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완주군은 긴급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1회 추경(5월 예정)에서 강도 높은 세율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지양하고, SOC 사업의 경우 주민수요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시기를 조정해나간다는 계획이



완주군이 코로나19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다. 더불어 행사성 경비 및 경상사업 등을 과감히 절감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 감염 예방에 최우선 노력하면서 군민들이 무사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북도의 정책 지원방향이 맞춰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현재 완주군에 단 한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군민과 행정, 의회, 지역사회가 함께 합심하여 방역망 구축과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덕분"이라며, "성숙한 의식으로 정부를 믿고 고통을 감내해 주고 계신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은 물론 군민들 생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행정력과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주=이중복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 알루뱅크가 지난 6일 김제시청을 방문해 성금 3백만원을 전달했다.

## 어려움 극복하는 따뜻한 나눔

### 알루뱅크, 코로나19 극복 성금 3백만원 김제시청에 기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알루뱅크가 김제시에 힘을 보탰다.

김제시에 따르면 (주)알루뱅크는 6일 김제시청을 방문해 성금 3백만원을 전달했다.

기탁받은 성금은 코로나19 예방물품과 생활지원 물품을 구매해 사회복지시설이나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진다.

이날 성금을 전달한 (주)알루뱅크 성금회장은 "현재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감염병 확산 예방활동을 위해 애쓰고 있는 분들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잘 쓰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코로나19 조기 종식으로 시민 모두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알루뱅크는 중소기업부로부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영혁신 기업 인증을 받은 알루미늄 합금 제조 기업이다.

이날 기탁은 지난해 12월 백산면 행정복지센터에 백미 100포(250만원 상당) 기탁에 이어 연이은 성금 기탁으로 (주)알루뱅크는 지역 상생을 위한 기부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 4월 9일 부터 김제사랑장학생접수 시작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박준배)이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2020년 김제사랑장학생 선발에 나섰다.

재단에서는 4월 6일부터 장학생 선발계획을 김제시와 김제사랑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4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열흘간 신청을 받아 5월 중 장학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김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김제시민의 자녀로 학업성적이나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대학생이며, 특히 이·통장자녀, 귀농·귀촌인 자녀, 다문화가정자녀, 예·체·기능자, 생활형편이 어렵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 등도 포함시키고, 올해 처음 관내 고등학교 졸업 후, 관내기업에 취직한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김제사랑장학재단은 경제적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면학여건 조성으로 지역 우수 학생의 관내 고학유도를 통해 우수 인재의 지역 이탈 방지에 노

력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지원신청서, 성적증명서, 출신학교 졸업증명서 등 필수서류와 기타 첨부서류를 구비해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장학생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제사랑장학재단(☎540-35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고등학생의 경우 연 1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받고, 대학생의 경우 연 300만원에서 최대 연 600만원의 장학금을 차등 지급해 과감한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김제시민의 학업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박준배 이사장은 "김제사랑장학재단에서는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현재 관내 고교 진학률이 2008년 63.5%에서 올해 73.5%까지 높아지고 있는 등 김제지역의 교육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사랑장학재단은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300여억의 기금을 조성하여 다양한 장학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수목원형 공원묘지, '호정공원' 준비 박차

### 완주군 '호정공원 클라우드나인'

#### 호남·충청권 최대 규모 공원묘역

전북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720-10에 친 환경적인 장묘문화를 지향하는 '호정공원 Cloud9(클라우드 나인)'이 묘원 사업 준비를 시작했다. 3일 준공허가로 1차 공사를 완료한 호정공원은 '신'이 내린 최고의 명당 자리로 호남·충청권 최대 규모와 품격을 자랑해 지역 장묘 문화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재단법인 '호정공원 Cloud9' (이사장 신영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 완주군계획시설(공동묘지 및 도로) 사업인가고시 후 추진된 공원묘역은 "십 년이던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을

넘겨 11년 만에 완주군으로부터 준공 검사필증을 발급 받았다.

오랜세월이 흐르만큼 나무한그루 풀 한포기 풀 하나에도 사업 시행자의 정성스런 손길과 세심함이 곳곳에 느껴지는 호정공원은 전체 면적이 호남·충청권 최대 수준인 48만8,000㎡로 '배장묘' '봉안묘', '자연장', '봉안탑'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종합공원묘원이다.

전주 - 익산에서 30분, 고속도로를 이용 시 논산IC에서 10분 거리로 전국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500여 대 이상 동시 주차가 가능한 넉넉한 주차장과 휴게시설 등은 유족의 편의까지 살렸다.

재단법인 '호정공원 Cloud9' 신영욱 이사장은 "문화와 예술이 조화된 친 환

경적인 수목원형 공원묘지를 설치 운영하여, 자연과 인간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환경 문화예술의 산 교육장을 제공하고 농촌경제에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사회 개발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꾀하며, 매년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 기반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사회 전반에 확산 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묘원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완주군민과 화산면 운곡리 5개 마을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한다. 고 했다.

한편, 화산농협과 운곡리 5개 마을 개발위원회 등은 공원개장에 따른 기대감속에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 하고 호정공원 개장을 축하했다

/원주=이중복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